정치권, 새해 시작은 현충원 참배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대통령·여야 지도부 헌화…한동훈-이재명, DJ 묘역서 조우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1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 등 40여명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고 헌화와 분향을 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충탑과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방명록에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위원장의 현충원 참배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예지·구자룡·장서정·한지아·박은식·윤도현·김경률 비대위원 등 비대위 전원이 함께했다. 장동혁 사무총장,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 김형동 비대위원장 비서실장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썼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DJ 묘역 앞에서 조우했다. 두 사람은 악수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간단한 새해 인사를 나눴다.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천하람·이기인 창당준비위원장 등 신당 인사들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다.

천 위원장은 "어렵사리 지키고 키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 위원장은 "청룡의 해, 순국선열께서 이룩한 민주화의 기틀 위에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습니다"라고 각각 방명록에 적었다.

이 전 대표는 방명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고양시 행주산성을 찾아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이석현 전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등 신당 창당 시 합류를 선언한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치는 국민이 하는것…오직 국민 향해야"

민주당 신년인사회…홍익표 "통합된 힘으로 총선 나아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보통 정치, 그러면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뭔가 작전을 하고 협의하고 끌어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이란 것이 마치 내가 어딘가에서 싸워서 그야말로 뺏어온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결국 그 권력이란 것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해야 될 일들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라며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오른 물가에 국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는 게 정치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아껴 쓰라, 난방비가 부담되면 덜 써라' 이건 대책이 아니다. 그건 방관자가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깨고 더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청룡의 해, 이 청룡의 힘으로 평화의 위기,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다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힘있게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오는 폭압과 독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또 다른 유혹의 손길에도 과감히 물리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떤 형태도 분열이나 당의 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이야말로 하나된 힘으로, 통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에 나아가는 게 용기 있는 태도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자세"라고 당부했다.

문희상 상임고문은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고사성어를 새해 덕담으로 소개하면서 "같은 배를 탄 사람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하나다, 똘똘 뭉쳐, 이재명 파이팅'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당직자들과 영입 인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행사를 마친 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신당 영향력 '미미'

▶1면에서 계속

이에 새해 벽두부터 한 위원장이 광주(4일)를 찾고, 이재명 대표는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방문하는 등 '호남 총력전'을 벼르고 있다.

호남으로서도 이번 총선을 통해 '호남 정치 복원'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남은 과거 선거에서도 전체 판세를 뒤흔드는 선택을 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의 호남 민심은 전체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국회 재입성 여부, 신인들의 당선 폭에 따른 '호남 물갈이'도 주요 총선 관전포인트다.

한편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는 응답률 14.6%,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엠브레인퍼블릭이 경향신문 의뢰에 따라 진행한 여론조사는 지난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 대상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지난 26~27일 성인 1000명 대상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3.4%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하면 된다.

한동훈 "김건희 특검은 악법" 재확인

국민의힘 신년인사회…"공관위원장 인선 조건은 공정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공천은 두 가지다. 공천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한다.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 그것을 충분히 해낼 사람을 신중하게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질문을 받자, '김건희 특검' 대신 '도이치 특검'이라는 표현을 쓰며 "도이치 특검 역시 여러 차례 총선용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 법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고 거듭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금 대장동 특검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총선 전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민경우 비대위원이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것에 대해 "과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제가) 동의하지 않는 발언이어서 노인회장에게 따로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출발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언행에 신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석이 된 비대위원을 추가로 인선할지에 대해선 "차차 생각해보겠다"며 "상징성을 보여줄 사람이 있으면 모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모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김형동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대해 '본인은 한국노총 출신에 배우자가 중국 국적, 장인이 중국 공산당 간부 출신'이라며 극우 유튜버들 중심으로 정체성 문제 제기가 된 것을 두고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때 오히려 강해지고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정당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한국은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024~2025년 임기 활동을 시작했다.

국제 평화·안전 질서를 유지하는 유엔 최상위 조직에 입성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국제 분쟁과 비전통적 안보 의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당선된 뒤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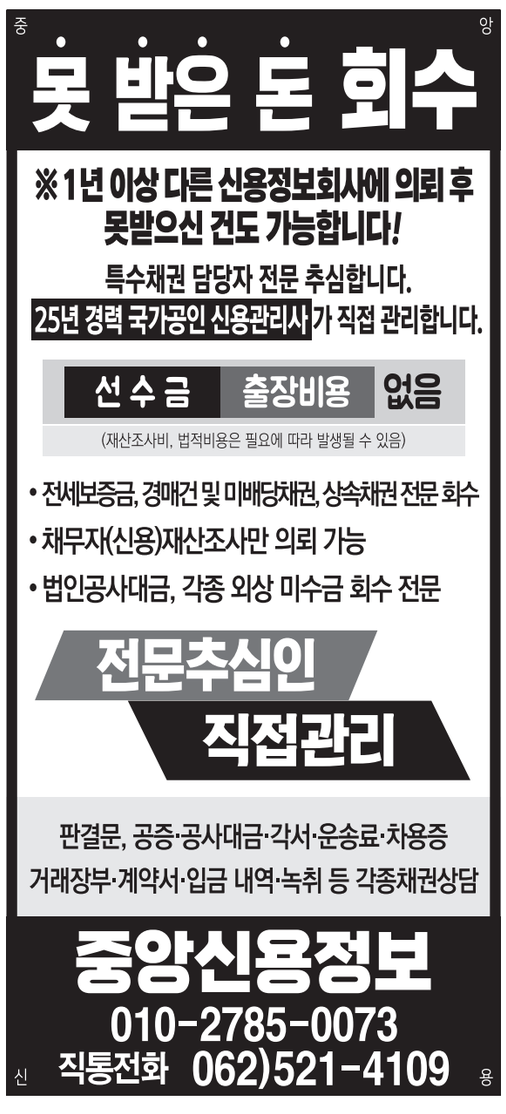
상임이사국 5개국(미·중·러·영·프)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임기 2년)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전 세계 평화·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유엔 최고 의사 결정 조직이자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안보리 이사국은 안보리 회의 발언, 투표, 결의안 제출 등 권한을 보유한다. 여기에 매달 돌아가면서 맡는 의장국이 되면 회의 소집권도 갖는다.

무엇보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간 이해당사국으로서 발언해온 한국은 이젠 이사국으로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한층 선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공식회의, 협의, 보충적 비공식 논의 등 안보리 모든 회의에 참여하고 북한 관련 결의, 의장성명 문안 작성을 주도하는 등 안보리 실질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피력하고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임이사국인 미국, 같은 해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일본과 안보리 무대에서 '한미일 공조'를 실현해 대북 압박 메시지에서도 입장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남해에너지개발 주식회사("갑")는 상법 제522조에 따라 2023년 12월 28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안산에너지개발 주식회사("을")는 상법 제522조에 따라 2023년 12월 28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 의한 결의로써,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수반하여 "갑"을 제외한 "을"의 주식 1주에 대하여 "갑"의 주식 0.6주를 할당 교부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합병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각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일

"갑" 남해에너지개발 주식회사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백도로 1241-16 대표이사 김 형 석
"을" 안산에너지개발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42, 6층(광산동, 안산빌딩) 대표이사 김 호 석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1. 발전사업개요
• 발 전 소 명 : (유)햇빛섬태양광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1704번지 외 37필지 (총 38필지)(내양리 1704-9, 1704-12, 1704-14, 1707-21, 1707-15, 1707-19, 1704-2, 1704-7, 1705-3, 1705-9, 1705-11, 1705-14, 1705-16, 1705-23, 1707-25, 1707-27, 1706-4, 1706-9, 1706-15, 1706-17, 1706-19, 1706-25, 1708-13, 1708-11, 1708-15, 1708-17, 1708-21, 1708-23, 1705, 1708-22, 1708-19, 1703-2, 1703-13, 1705-1, 1705-2, 1703-11, 1707-29)
• 발전소 면적 : 683.930㎡
• 공 고 기 간 : 2023. 12. 26. - 2024. 01. 04. (10일)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 전 용 량 : 92.925[㎿]
• 사업개시예정일 : 2031년 12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 2032. 01. 01. - 2051. 12. 31. (20년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햇빛섬태양광 대표이사 안 지 원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 2023. 12. 26. - 2024. 01. 04. (10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 02-6253-8000 팩스 : 02-6253-7777
E-Mail : help@soulenergy.co.kr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1. 발전사업개요
• 발 전 소 명 : (유)하늘소금태양광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1621-9번지 외 42필지 (총 43필지) (광정리 1617-10, 1617-12, 1618-10, 1618-12, 1618-13, 1618-8, 1619-10, 1619-7, 1620-10, 1620-8, 1621-10, 1621-13, 1621-14, 1621-15, 1622-10, 1622-12, 1622-14, 1622-15, 1622-8 / 자동리 1976-10, 1976-14, 1976-15, 1976-17, 1976-18, 1976-19, 1976-8, 1977-12, 1977-15, 1977-16, 1977-8, 1978-11, 1978-16, 1978-17, 1979-10, 1979-14, 1979-17, 1979-3, 1981, 1981-1, 1981-6, 1981-7, 1981-9)
• 발전소 면적 : 665,327㎡
• 공 고 기 간 : 2023. 12. 26. - 2024. 01. 04. (10일)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 전 용 량 : 90.00[㎿]
• 사업개시예정일 : 2031년 12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 2032. 01. 01. - 2051. 12. 31. (20년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하늘소금태양광 대표이사 김 태 원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 2023. 12. 26. - 2024. 01. 04. (10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 02-6253-8000 팩스 : 02-6253-7777
E-Mail : help@soulenergy.co.kr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당 회사는 2023년 12월 26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12월 29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제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주식회사 동서남북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3번로 187(장록동)
청산인 장 행 국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 (2차)

당 회사는 2023년 12월 26일 총주주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12월 26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주식회사 비에이에너지랩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45, 비동 1102호(연제동)
청산인 강 태 영